

보도시점 (전매체) 12.18.(목) 16:00

후속투자 유치 20조원 달성한 틱스, 13년만의 지원단가 상향 등 성장 지원 대폭 강화

- 틱스 기업·운영사·지원기관과 함께 「TIPS 성과공유회」를 개최하고, 간담회를 통해 틱스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 청취
- '26년부터 R&D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, 지역기업 확대를 위해 기업 선정 시 지역에 50% 우선할당 및 수도권 대비 투자요건 50% 완화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한성숙, 이하 중기부)는 18일(목)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틱스 참여 기업 및 운영사, 지원기관장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**‘TIPS 성과공유회’**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이번 행사는 세계적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**틱스의 성과를 공유**하고,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**'2026 TIPS 추진방향'**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<틱스 성과공유회 개요>

- **(일시/장소)** 2025. 12. 18.(목) 15:00~19:00 /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3층
- **(참석자)** 중기부 장관, 틱스 기업, 틱스 운영사, 지원기관장 등 약 400명 내외
- **(주요내용)** ① 틱스 우수기업 및 우수운영사 성과 발표
② 2026 틱스 추진방향 소개
③ 올해의 기업 및 올해의 운영사 유공표창

틱스는 민간의 운영사가 보유한 **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**하여 투자·보육하고, 정부가 **연구개발(R&D)과 사업화 자금**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체계이다.

출범 이후 지난 13년간 4,400여개의 혁신기업이 참여하였으며, 올해는 후속 투자 유치 **20조원을 돌파**하는 성과를 이뤄냈다.

특히, 오늘 행사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과 운영사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**'올해의 틱스 기업'**과 **'올해의 틱스 운영사'**를 처음으로 선정하였다.

'올해의 틱스 기업'으로는 국내 최초 AI 유니콘으로 성장한 **'리벨리온'**, 틱스와 함께 창업을 시작해 빠르게 성장 중인 **'비트센싱'**, 후배기업 멘토링 등 상생협력을 실천 중인 **'드림에이스'**가 선정되었다.

'올해의 틱스 운영사'로는 최근 기업 발굴과 보육 과정에서 높은 성과를 보인 **'서울대기술지주'**, **'퓨처플레이'**, **'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'**가 선정되었다.

이번 행사에는 민간 기업과 협업하여 수립한 성장 지원방안도 공개하였다. 투자 데이터베이스 전문기업인 **더브이씨(The VC)**는 데이터 기반으로 틱스의 성과를 분석하고,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. AI 기반 기업분석 솔루션 기업인 **엔톡**은 틱스 기업의 체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**'틱스 성장지원 시스템'**을 선보였다.

한편, 한성숙 장관은 본 행사에 앞서 올해의 기업 및 올해의 운영사와 **간담회**를 갖고 **'2026 TIPS 추진방향'**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으며, 본 행사의 **개회사**에서 이를 발표하였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K-빅테크 육성을 위한 성장지원 강화

틱스 기업에 대한 R&D 지원 규모를 **대폭 확대**한다. 틱스 도입 이후 13년만에 최초로 R&D 일반트랙 지원단가를 2년 5억원에서 **2년 8억원으로 상향**하고, 일반트랙을 졸업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**3년 15억원 규모의 후속 연구개발 지원***을 제공한다.

* 3년간 15억원을 지원하는 딥테크트랙의 지원 대상을 일반트랙 졸업기업으로 개편

이와 함께, 틱스 운영사의 **투자 요건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**하여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고, 유망기업 선별기능도 강화한다.

나아가, 틱스 기업의 다양한 데이터를 AI 기반 '성장지원시스템'으로 분석하여 기업 유형에 따라 후속투자·판로확보·피보팅*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.

* 사업 전략 또는 모델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

② 지역·글로벌로 영역 확장

비수도권 틱스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선정 평가 시 지역에 50%까지 우선 할당하고, 투자요건도 수도권 기업 대비 50% 완화(수도권 2억원, 비수도권 1억원)한다. 또한, 지역의 유망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「웰컴투틱스」도 기존 '5대 권역' 중심에서 '5극 3특' 체계로 확대한다.

* (기존) 5극(동남·충청·호남·대경·수도권) 개최 → (추가) 3특(전북·강원·제주) 개최

아울러, 혁신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'틱스 글로벌 사절단'을 해외 주요 전 사회와 네트워킹 행사를 중심으로 파견하여 해외 바이어 및 VC와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.

③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

틱스 선배기업이 후배기업 대상 멘토링 등의 성장지원 사업을 자체 기획하면,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여 틱스 생태계에 'Pay-it-Forward*' 문화를 확산한다.

* Pay-it-Forward :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나 또한 조건없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주는 것으로,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나눔 문화

또한, 기업 선정 과정에서는 기후테크·소셜벤처 등 ESG 기업을 우선선발하는 'ESG 부문'을 신설하고, 퇴직연금제도 도입 여부도 반영한다.

④ 지원체계 고도화

작년 결성된 권역별 지역협의회를 '틱스협의회'라는 정책파트너로 확장한다. 향후 정책 추진 시 기업·운영사·지원기관이 '틱스협의회'를 통해 의견 수렴 등을 함께 할 계획이다. 또한, 평가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,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.

한성숙 장관은 "AI·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이 세계 경제 패러다임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틱스 기업과 같은 혁신 스타트업의 잠재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"면서, "틱스와 우리 창업생태계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"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창업정책관 신산업기술창업과	책임자	과 장	이준희	(044-204-7640)
		담당자	사무관	지홍진	(044-204-7645)
			주무관	박상혁	(044-204-7652)